

최고의 기술, 고객 감동, 세계시장 석권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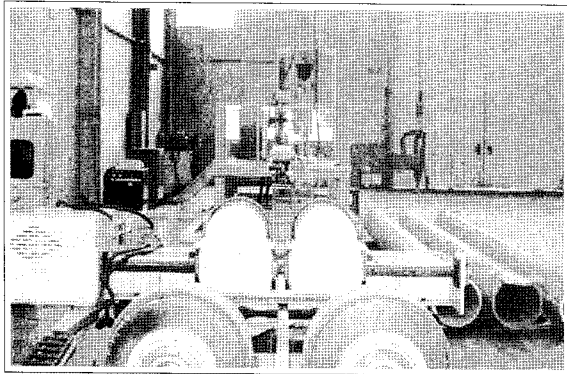
새한엔텍(주)(대표 문상록)은 지난 1993년 배관 클램프, 피팅류 제조를 목적으로 새한산업으로 출발, 1997년 새한엔텍으로 법인 전환하였으며, 2002년 녹산국가산업단지로 확장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압용 배관재 전문생산업체인 새한엔텍은 최고의 기술, 고객 감동, 세계시장 석권이라는 경영이념으로 국내 최초 파이프 클램프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기술과 현장 경험의 조화로 최고의 성능과 최적의 현장성 및 최강의 내구성을 갖춘 일류 상품만을 생산하고 있다.

2004년 경영난으로 인해 1,700평의 회사 부지

중 절반을 매각하고 2005년에는 나머지 공장을 매각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 직원의 일치된 각오와 노력으로 2007년에는 전년대비 50% 이상의 매출증대를 실현하여 매각했던 공장 중 절반을 다시 취득하였다.

2008년에는 전년대비 100% 이상의 경이적인 매출증대를 실현하여 나머지 절반을 취득, 잃었던 공장 부지를 모두 회복하게 되었다.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현재 원자력 부문의 꾸준한 수주 증가와 70여명 임직원의 일치단결된 노력에 힘입어 2008년 매출 255억 달성에 이어 올해 300억 매출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무산화 침탄질화 공정’ 개발 통해 경쟁력 확보

새한엔텍은 계장용 관 이음쇠 및 밸브를 제조하는 전문업체로서는 드물게 계장용 피팅 및 밸브뿐만 아니라 Butt Welding 피팅에서 구조물 제작, Welded Pipe 제작 등 다방면의 원자력 발전분야에 걸쳐 원자력 품질등급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조직과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원자력?화력 발전설비, 석유화학 플랜트, 조선?해양 플랜트, 반도체 등 계장 라인의 튜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계장용 관 이음쇠의 핵심부품인 ‘BACK FERRULE’은 튜브를 밀봉시켜주는 locking 특성이 필요하므로, 상용화된 페럴에서는 침탄을 이용한 표면 경화법이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표면경화의 방법으로 주로 염욕 침탄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페럴의 경우, 유효 경화층 두께가 100 μ m 정도로 외국 경쟁사보다 작고, 내식성 또한 1/2 정도 떨어져 해외시장에서 제품성능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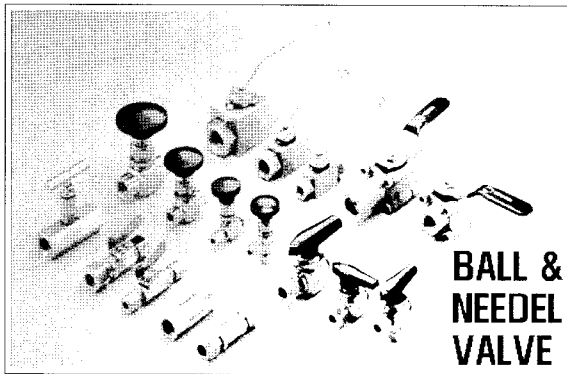
이에 착안한 새한엔텍은 표면경화 열처리법의 하나인 무산화 침탄질화 열처리기술을 이용하여 ‘BACK FERRULE’의 침탄특성을 세계적인 회사인 Swagelok 제품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최적의 무산화 침탄질화 공정의 개발을 통한 관련 제품군(계장용 관 이음쇠 및 계장용 밸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원자력 품질등급 만족하는 제품 생산

새한엔텍의 무산화 열처리는 표면이 경화처리됨으로써 산화성을 가지는 스테인레스강을 일정 조건에서 열처리함으로써 표면 경화처리에 의한 기계적 성질을 크게 손상하지 않으면서 무산화에 의한 내식성의 증대와 광휘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로 인해 기계적 성질을 요하는 스테인레스 제품, 광휘성을 요하는 스테인레스 제품은 물론, 높은 기계적 성질과 광휘성을 동시에 요하는 제품 모

두에 높은 내식성을 부여함으로써 관 이음쇠의 'BACK FERRULE', 밸브의 밸브시트, 밸브의 시트 링 등 산업의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강의 '무산화 열처리 방법'이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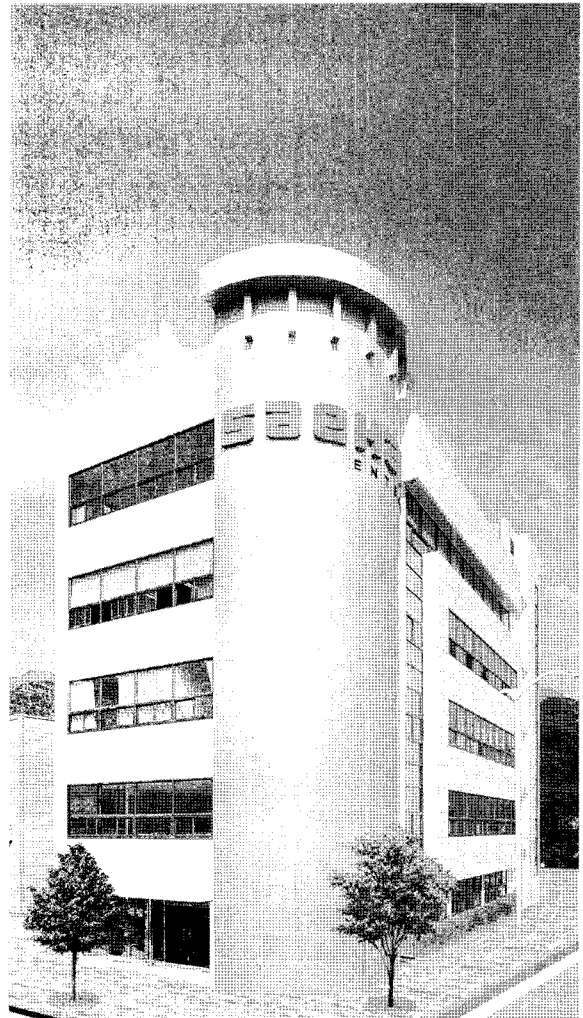


현재 새한엔텍은 기존에 대기업에서 진행하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핵심부분인 NSS의 NSSS EMBEDMENT, NSSS SUPPORT를 신월성 원전 #1,2호기분에 대한 'Q' CLASS등급 물량을 직접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건설의 배관 부분에 있어 국내업체로서는 처음으로 WELDED PIPE를 원자재 발주에서부터 용접, 수압테스트, 출하 시까지 전 공정을 자체 설비를 갖추어 일관되게 제작하고 있으며, 시험 및 품질보증체계를 통해 원자력 품질등급에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다.

새한엔텍은 올해 안정기반 확충(자금, 시스템, 영업), 해외시장 확충(수출 목표 \$500만), 이익창

출 극대화 및 복지향상 등을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일류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 통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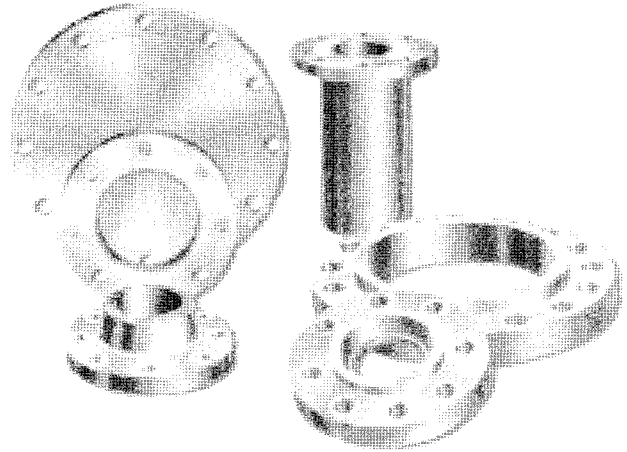
인터뷰 / 새한엔텍(주)
문 상 록 대표

새한엔텍의 강점은 무엇인지.

원자력 발전분야의 다방면에서 원자력 품질등급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조직과 품질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계장용 관 이음쇠와 밸브를 제조하는 전문업체로서는 드물게 계장용 피팅과 밸브뿐만 아니라, BUTT WELDING 피팅에서 구조물 제작, WELDED PIPE 제작 등이 가능하다.

새한엔텍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원자력 발전분야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조선, 플랜트 분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세계시장으로의 진출확대를 위해 해외 영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시회 참여 등 당사 브랜드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내년도 매출은 350억 이상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의 목표는.

새한엔텍은 첨단 설비에 의한 전 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신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함으로써 최상의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에 투자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될 것이다. 끊임없는 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고객에게는 감동과 믿음을, 회사 가족들에게는 희망과 사랑을 주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여 고객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다.

[취재] 기획홍보처 홍보팀 양 승 수